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를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지구 온난화는 사시사철 봄 날씨를 위한 개혁 과정

한반도를 덮친 지구온난화에 의한 여름 폭염의 폭염

극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상기후가 한반도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여름철 폭염으로 나타났다. 8월 한 달 내내 밤낮 할 것 없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었다. 8월이 시작되는 날에 기상청은 전국적인 폭염이 7월에 이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대기 하층은 서풍에 의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중상층에는 고온의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과 2018년에도 지금까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강하게 발달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난 사례가 있었다.

올해 유독 수도권으로 소나기가 많이 내렸다. 열대야가 시작된 7월 22일 이후 2018년에는 소나기가 6번 내렸는데 올해는 17회로 3배 정도 더 많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대기 중으로 습도를 팽창해 높였다고 한다. 야간에는 덥고 습한 바람이 바다에서 한반도 내륙으로 유입되어 열대야 현상을 가중시켰는데, 이는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예전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온도 상승의 여파는 울릉도 강원 동해안에서 길이 1~2미터에 달하는 해파리 출몰이다. 피서객과 어민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해파리한테 쏘이는 사건이 전년보다 14배로 증가한 618건으로 보고 되었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해파리 수매사업 등을 벌여 총 160톤을 제거했다.

한반도 남단 제주 북부는 9월 4일(현재) 울릉도 58일 누적 열대야(밤 최저 기온 25도 이상)가 발생했으며, 낮에 오른 기온이 밤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역대 최다 기록(2022년 56일)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울릉도 열대야가 특히 심한 이유는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지목되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밤사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해풍이 많아지며, 밤공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바닷물) 온도 변화에 의한 기후재난의 심각성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온도 상승의 여파는 울릉도 강원 동해안에서 길이 1~2미터에 달하는 해파리 출몰이다. 피서객과 어민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해파리한테 쏘이는 사건이 전년보다 14배로 증가한 618건으로 보고 되었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해파리 수매사업 등을 벌여 총 160톤을 제거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엘니뇨는 올해 8월에 와서 이제 끝나고 점점 라니냐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서양 해류의 온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AMOC(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의 멈춤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대서양 해류가 멈춘다면, 북유럽은 더 이상 온화한 기후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극심한 한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아마존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한다. 2004년에 방영된 영화 <투모로우>에서 대서양에 있는 부표의 온도계들이 갑자기 낮은 온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해류가 멈추고 결국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 빙하기가 찾아오는 재앙을 보여준 바 있다.

지구의 평균 온도 1.1도 상승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에는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같은 규모의 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정도의 열에너지가 매년 열에너지로 흡수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많은 열에너지가 축적되거나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1.1도 상승하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구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1초에 5개(하루로 계산하면 약 43만 2천 개)의

핵폭탄이 터지는 위력에 해당하는 열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에 인도양에서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이번이 발생했는데, 인도양의 동쪽(해수 이상 저온)과 서쪽(해수 이상 고온)의 온도 격차가 무려 2도나 벌어졌다. 그리하여 인도양 서쪽의 해수 이상 고온 현상은 수증기 상승을 유발했고 주변 동아프리카에는 많은 비가 내리게 됐다. 반대로 인도양의 동쪽의 해수 이상 저온 현상은 주변 동아시아와 호주에 가뭄과 고온 현상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는데, 2019년 9월 호주 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의 건조한 산에 따른 번개로 촉발된 산불은 국민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산불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에 이르러 6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 진압되었다.

봄철 4월 한낮 기온이 30도

24절기 중 봄철 마지막 절기인 '곡우'(4월 19일)가 오기도 전인 14일, 파안한 여름 더위로 전국이 들끓었다. 이날 강원 영월과 정선군은 32.2도, 경기 동두천 30.4도, 서울 29.4도 등 전국 곳곳에서 관측 이래 4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런 고온 현상의 기저에 해수면 온도 상승이 작용한다면, 봄철 이상고온 현상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더위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우선 지구 표면 온도가 10개월 연속 월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 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C3S)는 3월 지구 표면 기온이 14.14도로 관측 역사상 가장 따뜻한 3월이었다고 9일(현지 시각) 밝힌 바 있다. 지구 전체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한국이라고 예외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 『4월에 32.2도 찍었다...지구 표면온도 10개월째 최고치 경신』 2024.04.15. 한겨레 기사

날씨와 관련된 구세주 말씀

지금 이제 이 날씨가 오늘날 4월 달인데 여름 날씨와 같죠. 왜 그러지를 아세요. 구세주가 이 세상을 뒤집어엎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지. 구세주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날씨조차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격앙유혹에도 말할 수 없이 더워서 이제 불속에서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뜨거운 여름 날씨가 오는 것이 이제 어떠한 변화가 오느냐 하면, 이 세상은 뜨거운 여름도 없애고 겨울도 없애고 봄 날씨와 같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는 세계요. 사람은 못살아요. 사람으로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이제 마귀들은 그 하늘나라에서 팔팔 뛰는 생활을 십 년도 아니고 백 년도 아니고 천 년도 아니고 영원무궁토록 팔팔 뛰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지옥 안 들어가 준비를 해야요. 안 들어갈 준비를 해야 이제 지옥에 안 들어가고 행복하게 늘 쾌락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무궁토록 날아다니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주인공이 구세주요. 구세주야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세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될 수 있지, 구세주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 2001.04.19. 이긴자 말씀 중에서*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2> “잘못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항상 웃게 되어 있다. 불만 불평의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이 눈에 띄지를 않는다. 누구를 봐도 아름답고, 누구를 봐도 말할 수 없이 이

쁘게 보이는 고로 잘못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하는 게 눈에 띄면 그 자식을 키울 수 있겠어요? 똥을 싸도 이쁘고 오줌을 싸도 귀엽기만 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구세주는 여러분들이 똥과 같이 더러운 죄를 묻히고 와도 이사람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기는 삶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사랑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직장이나 가정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비밀은 무엇일까? 일본의 정신 의학자 사이토 시게타카 쓴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에 보면 사랑받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는 법이다. 또한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알맞게 너그러우며 인생을 80퍼센트 정도로 사는 사람에게서 편안함과 여유가 느껴진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도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과잉 친절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으로 바꾼다. 모임에서 늦는 사람이 있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운 이야기로 지루한 시간을 잊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과연 누가 더 인기가 좋을까?

또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든든한 의논 상대가 되어 주는 사람은 대개 인내심이 강하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남의 실패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며 다른 사람에 대한 혐의나 나쁜 소문이 돌았을 때 퍼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멈춘다. 위로나 충고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

한 뒤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해준다. 사람들은 이런 이에게 신뢰감을 느끼고 마음을 털어놓는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좋은 점은 있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고 이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잘 이해하고 개성이나 약점까지도 감춰줄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고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안다. 자기 일을 알아서 해결하고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나누어 준다.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작은 일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취감을 느끼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자신의 일을 초월하여 타인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냥하며 인생을 즐길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고리를 형성하여 순환하면서 결국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우리나라에 메시아 정도령 출현으로 극심한 자연재해나 질병과 전쟁의 고통을 받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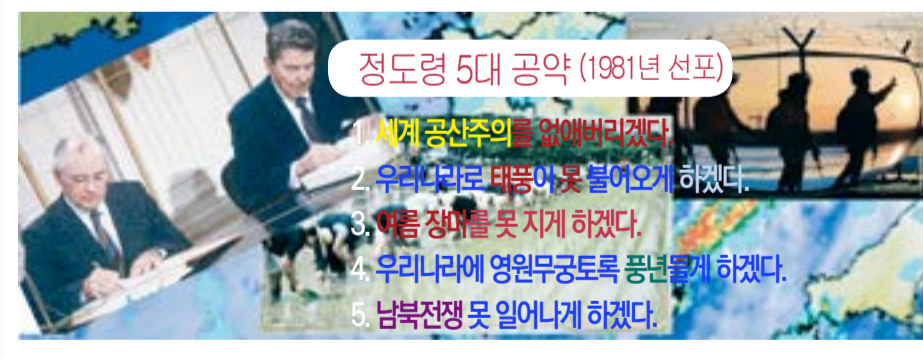
21세기는 불사영생의 지상천국을 이루는 새천년의 시작이다. 완전한 지상천국을 이루기까지 이긴자 구세주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감모 이슬성신을 내리는 메시아 정도령이 출현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사영생의 진리 말씀이 통시대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어지러운 이때, 대한민국은 극심한 자연재해나 질병과 전쟁의 고통을 받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신 1980년 이후 그분이 약속하신 5대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다. 정도령님의 5대공약이란, 세계공산주의를 없애고,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며, 대한민국에서 6~7월의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고, 한국 땅에 직접적으로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여, 계속 풍년들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지금 남북한의 현실을 보면 천국과 지옥 세상에 비유할 수 있다. 남북한은 같은 한민족이요,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사망을 이긴자 구세주 정도령이 역사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포받고 있는 천국의 표상이 되고 있는 반면, 신을 부정하고 진화론적 유물 공산주의 이념으로 통치하는 북한은 천부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을 노예화하고 동물시하는 지옥의 표상이 되고 있다. 이제 지구의 운명은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오늘날 지구촌은 인터넷 매체(https://victor.or.kr)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지구 어

디서라도 구세주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구세주의 진리 말씀을 따를 때 이 세상은 급진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지상천국의 세상으로 변모할 수 있다. 반면에 기존의 사고방식대로 구세주 역사를 외면하고 비난하며 따르지 않으면, 삼체판란의 환란과 흑사 괴질과 천질이 창궐하여 아침에 병에 걸리면 저녁에 죽게 되는 비극적인 참상을 맞게 된다는 예언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徐翰驥



▲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리니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 요엘서 2장 28-30절 「감모의 광명이 사람의 탐구명으로 들어가면 성별한다.」 - 열반경 9권 90페이지 「火雨露三豐 海印(화우로삼풍해인)이니 極樂入卷 發行下(극락입권 발행하)니 化字 化字 化字(화자 화자 화자인)에 無所不能 海印(무소불능 해인이라. - 격암유록 해인(海印藏)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정도령≫

20세기 후반에 정도령님의 《5대 공약》이 선포된 지 어언 44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촌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가뭄과 산불 그리고 홍수 등으로 인하여 “風雲造化任意用之(풍운조화임의용지)” 갖추고 계시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도령의 5대 공약 가운데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가 하면 소멸시키는 능력과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는 능력 그리고 풍년들게 하는 능력을 정도령이 가지고 계시어 《격암유록 출성론(出聖論)》에,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이 44년째 우리나라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민족의 예언서 격암유록에는 정도령이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